



배종훈의 명상카툰

### 빈 공터 속 부처의 기운

서해안 고속도로는 하얀 꿈속처럼 짙은 안개로 길이 나 있었다. 가야할 거리도 멀고, 주말이면 늘 막히는 고속도로라는 악명을 기억했기에 새벽길을 골랐지만 정작 내 이마를 누르는 것은 눈앞을 막는 안개도, 도로를 메운 자동차도 아닌, 실체가 없는 것이다.

우리 삶이 항상 이렇다. 하루하루 나아가는 생(生)에서 걸음을 멈춰 세우는 것은 물리적인 장애나 불행이 아닌 예측하지 못했던 불확실성, 불안감이다.

일주문을 지나 여기저기 불규칙적인 듯 규칙적으로 서있는 석불과 석탑들을 마주하니, 또 다시 안개 속에 들어선 기분이다.

천개의 탑과 천개의 부처가 산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이 골짜기에 이제는 석탑이나 석불이 없는 빈자리에도 여전히 불(佛)의 기운이 가득해서 빈 공터도 그냥 밟지 못하겠다.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대비주(大悲呪) ①

### “너의 큰 슬픔, 내가 안아줄게”

“엄마 나 교정기 빼면 안 될까?”  
“응, 안 돼.”  
엄마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다.

“언니 보라. 네 딱 감고 2년 보내고 나서 얼마나 예뻐졌나? 교정기 처음 끼고 그렇게 아픈 것도 참았는데 이제 와서 빼면 아깝잖아.”

“난 그냥 안 예쁜 것보다 불편한 게 더 싫어.”  
“엄마처럼 평생 주걱턱으로 살래?”

엄마는 튀어나온 아래턱을 과장해서 앞으로 쭉 뺀 후에 위아래로 딱딱딱 이를 부딪쳤다. 엄마에게 말해봤자 소용없을 줄 알았지만, 예린이는 말이라도 꺼내보고 싶었다. 교정기를 빼려면 앞으로 1년은 더 있어야 한다. 그 시간이 예린이에게는 10년도 더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세면대 앞에서 이를 살피었다. 역시나 고춧가루가 붙어 있었다. 위에 두 개, 아래 한 개. 밥을 먹고 물로 여러 번 입을 헹갔는데도 교정기 사이에 낀 고춧가루는 빠지지 않았다. 예린이는 오랫동안 이를 닦았다. 고춧가루가 모두 빠진 것을 확인한 후에도 구석구석을 살피며 환참을 더 닦았다.

그 일은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사진 한 장에서 시작했다. 사진 속에서 예린이는 웃고 있었고, 활짝 벌린 입술 사이로 교정기에 낀 고춧가루가 보였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었다.

‘불타는 철사.’ 사진의 주인공이 아니었다면 예린이도 그 사진을 보고 웃었을까.  
크덕크덕, 흥흥흥 같은 내용으로 시작된 댓글

은 점점 정도가 심해졌다. 더러워, 구역질 나. 예린이 배 많이 고프겠다, 음식 덜 먹어서. 저거 떼어서 다시 입속에 처넣어 주고 싶다…….

예린이가 좀 더 활발한 성격이었다면 어렸을 때, 아이들을 모두 웃길 만한 장난스러운 댓글을 달았더라면. 당장 사진 지우라고 화를 냈더라면. 예린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사진을 올리고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든 아이가 아영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을 뿐.

그 후로 손거울을 들고 다니며 자주 치아를 살폈다. 채팅방에는 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화재 현장을 살피고 있는 소방관 예린이.’

체육 시간에 달리다가 신발이 벗겨져도, 수업 시간에 필통을 떨어뜨려도, 누군가의 농담에 웃어도. 예린이의 행동, 표정, 말투 하나하나가 채팅방에서 증계되었다.

아이들은 예린이가 그 방에 없다는 듯이 예린이에 대해 지껄었다. 채팅방에서 나오면 1초도 되지 않아 초대되었다. 예린이는 휴대폰을 잘 보지 않게 되었다. 새로운 글이 올라올 때마다 알람음이 울리면 웃장이나 배개 밑으로 휴대폰을 던져 놓았다.

“지나간다. 이 순간은 반드시 지나간다.”

잡자리에 들기 전 예린이는 침대에 누워 중얼거렸다. 아빠는 힘든 상황이 되면 이 말을 떠올린다고 했다. 힘든 순간은 반드시 지나가게 마련이라고. 이 순간은 언제쯤 지나가게 될까?

예린이는 아영이 엄마가 선물한 팔찌를 만졌다. 나무 구슬 위에 한문이 빼곡하게 새겨진 팔찌



그림 · 강병호

였다. 아영이의 엄마는 병실에서 나무 구슬 위에 이 글씨를 한 자 한 자 새기며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아영이를 따라 병실에 갔을 때, 아영이 엄마는 이 팔찌를 손목에 끼워주었다.

“가연은 우리 아영이 손, 언제까지나 꼭 잡아주렴.”

아빠는 이 팔찌가 대비주(大悲呪) 염주라고 했다. 대비는 큰 슬픔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팔찌에 새겨진 글씨를 단 한 글자도 읽을 수 없고 무슨 뜻인지도 알 수 없었지만, 구슬에 새겨진 글씨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있으면 슬픔이 축축하게 가슴 속에 배어드는 것 같았다.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축축해진 배개에 얼굴을 묻고 잠드는 것이 예린이에게는 마지막 일과가 되었다. 이 순간이 영원히 지나가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

교실로 들어서다가 튀어오는 아영이와 부딪쳤다.

“미안해.”  
“똑바로 보고 다녀. 주둥이가 삐꾸 되더니 이젠 눈까지 빼었니?”

아영이는 예린이를 밀치고 밖으로 나갔다. 교실 분위기가 이상했다. 아이들은 아영이의 말에 키득거리지 않았고, 뛰어다니는 아영이의 등을 싸늘하게 바라봤다.

“정말 구질구질해.”

주연이가 말했다. 주연이, 은채, 민서. 아영이를 친구라고 불렀던 아이들이 이제 아영이 뒤에서 아영이를 향해 눈을 흘기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예린이는 짐작할 수 있었다. 아영이가 아이들의 새로운 먹잇감이 되었다는 걸.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아영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쉬는 시간이면 아이들은 휴대폰을 들고 채

팅방에 글을 올렸다. 어딘가에 있을 아영이의 휴대폰에 씌 없이 알람이 울리겠지. 당동, 하는 짧은 경쾌한 소리가 그 애의 가슴을 활활하고 있을 것이다.

텅 빈 교실에는 아영이의 가방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예린이는 아영이의 가방을 어깨에 메고 교실을 나섰다.

아영이가 전화 왔을 때, 예린이는 무척 기뻐했다. 3학년 때 전학 가기 전까지 아영이는 예린이의 단짝이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고, 유치원도 함께 다녔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영이는 이혼으로 헤어져있던 아빠에게 갔다. 몇 번인가 편지를 보냈지만, 아영이에게선 답장이 없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차츰 아영이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되었을 때, 아영이가 돌아왔다.

돌아온 아영이는 어딘지 달라 보였다. 예린이가 호들갑스럽게 인사를 하는데도 아영이는 “지냈지?” 차갑게 한마디를 던지고는 끝이었다.

아영이의 집은 같은 단지였지만 길 건너편에 있었다. 그곳은 임대아파트였고, 주민들은 그곳이 우리가 사는 곳과 같은 이름의 단지라는 사실을 불편하게 생각했다. 아영이는 놀이터 그네에 앉아 있었다. 작은 어깨가 흔들렸다. 얼굴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애가 울고 있으리란 걸. 예린이는 흔들리는 어깨 위에 가만히 손을 올렸다.

“난 아주 즐겁겠구나. 이런 꼴을 보니까 속이 시원하니?”

못된 말을 하고 심술을 부려도 예린이는 아영이가 밟지 않았다. 아영이를 보면 웬지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어스름이 서서히 놀이터의 공기를 검게 물들이고 있었다. 가방을 놓고 돌아서는데 아영이가 손을 잡았다.

“가지 마. 잠깐만 같이 있어 줘.” <계속>

바쁜 하루...  
삭발할 때 상처없이 밀어지는  
방법은 없을까?

머리결이 강해 고생하는데...  
스님! 削髮면도 힘드셨죠!  
이젠 안심하십시오! 스님 삭발전문 비누가 있습니다

스님 삭발용 편백비누 削髮快  
편백원목오일  
초정광천수 함유  
부드러운 삭발 두피손상방지 피부자극최소화

■ 구입 문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단재로 1961  
☎(043)296-7776 | 010-3280-7776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mm 15만원  
[중] 110×80×160mm 20만원  
[대] 140×95×200mm 25만원

■ 재질 : 청동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